

이들의 친일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박중양 朴重陽 | 호추시계요[朴忠重陽], 1874~1959, 경북 달성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 중추원 부의장 / 도지사

1874년 5월 3일 경상북도 달성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이다. 1930~40년대 경상북도 청송군수와 상주군수 등을 지낸 박문웅(朴文雄)이 장남이다. 1897년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00년 아오야마[青山]학원 보통중학과를, 1903년 도쿄부기학교를 졸업했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 도쿄[東京]경시청에 경찰제도 연구생으로 들어가 경찰사무와 감옥제도를 연구했다.

일본에서 귀국 후, 1903년 6월 관리서 주사에 임용되었으나 바로 그만두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고등통역관으로 일본군에 종군하여 인천 진남포·용암포와 중국 안동현[安東縣] 등지에서 활동했다. 같은 해 11월 농상공부 주사를 거쳐 1906년 5월 군부 군기창 주사로 근무했다.

같은 달 군부 파견원으로서 의친왕을 수행하여 일본에서 열린 관병식(觀兵式)에 참석하고 일본 정부가 주는 훈6등 서보장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후원으로 주전원(主殿院) 경위국(警衛局) 경무관을 거쳐 경상북도 대구군수 겸 경상북도관찰사 서리로 승진했다.

대구군수로 재직할 때 대구성(大邱城)을 허물고 도로를 만들어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도록 협조했다. 이때 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여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지만 이토의 도움으로 오히려 영전했다.

1907년 6월 평안북도관찰사로 승진하면서 평안남도 세무감, 평안남도재판소 판사, 평안남도 관립 일어학교 교장 등을 겸임했다. 1908년 2월 통역관으로 러일전쟁에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훈5등 서보장을 받았다. 6월 경상북도관찰사 겸 경상북도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었다.

12월 일한민 간친회(日韓民 懇親會)에서 "소생이 일신을 바쳐 이 땅을 위해 진력하고자 함에는 일본인 제군의 지도편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한국인들이 희망하는 바는 귀국인이 스승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지도를 요구했다.

1909년 1월 순종과 이토 통감이 경상도를 순시할 때 대구 수창학교에서 일본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일로 수창학교를 폐지할 것을 학부(學部)에 건의했다. 같은 해 7월 재조선 일본인 농업관계자와 유지들이 만든 한국중앙농회의 경상북도지회장에 선임되었다.

합병 후, 1910년 9월 경상북도 각 면의 면민들을 모아놓고 합병 조건을 설명한 후 일본 천황의 충량한 신민이 될 것을 주장했다. 이후 "폭풍과 홍수를 방어할 지력이 없고, 대세를 저항할 실력이 없다. …… 요로에 있으면서 민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취할 길"이라고 자신

의 친일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고급 관료로 활동했다.

1910년 10월부터 1915년 3월까지 충청남도장관을 지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1913년 6월 훈4등 서보장을 받았다. 1915년 3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찬의를 맡아 1921년 2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12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8년 4월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18년 5월 대구상업회의소 특별평의원, 경상북도 제2회 물산공진회 평의원 등에 선임됐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국민이 독립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할 도리가 없다. 독립만세를 천번 만번 외친다고 해도 만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3·1운동의 의미를 폄하했다.

같은 해 4월 3·1운동의 확산을 저지할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자제단(大邱自制團)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했다. 대구자제단은 규약에서 "경거망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자제케 함"을 목적으로 했고, "소요를 진압하고 불령한 무리를 배제하기 위해 '불온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관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1919년 9월 3·1운동 탄압에 협력한 공으로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이어 다시 관계로 나아가 1921년 2월 황해도지사를 거쳐 1923년 2월 충청북도지사에 임명되었다. 1923년 10월에는 관동대지진으로 제일 조선인이 큰 피해를 입자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는 유고(諭告)를 발표했다.

1925년 3월 도지사에서 퇴임한 뒤 '문관분한령'에 따라 휴직했다. 같은 해 5월 불교계의 친일어용단체인 조선불교단 대구지부 고문과 독립사상과 사회주의 배척을 기치로 발족한 내선융화단체인 동민회의 경상북도지부 상담역을 맡았다.

1927년 2월 휴직이 끝나고 면직됨과 동시에 중추원의 칙임관 대우 참의로 임명된 뒤 1941년 5월까지 네 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25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1931년 9월 훈2등 서보장을 받았다.

1933년 7월 중추원의 시정연구회 제도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4년 11월 시중회 평의원을 맡았다. 시중회(時中會)는 1934년 8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근간으로 신생활을 통해 신흥조선을 건설한다'는 취지하에 최린(崔麟) 등 천도교 신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 25주년을 기념해 편찬된 <조선공로자명감>에서 "이토 이하 총독부 대관으로부터 역량·수완이 탁월하다고 인식되고 비상한 때에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사급에서는 박중양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기념표창을 받았다. 1936년 5월 경상북도 결핵예방협회 평의원을 지냈다. 1938년 8월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1941년 1월 8일자 <경성일보>에 "이론이 훌륭해도 실행이 없으면 공론(空論)"에 지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시국은 백 가지 이론보다 하나의 실행을 요구"한다는 신년 소감을 밝혔다. 그해 5월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1943년 10월까지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임전보국단의 고문을 맡았다. 1942년 11월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1943년 4월 천황의 만세무궁을 기원하기 위해 조선신궁에서 열린 천장절제(天長節祭)에 참석했다. 같은 해 9월 전시 최대 관변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여(參與)를 맡았다.

1943년 10월 중추원 부의장에 올라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3,500~4,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학병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중추원 격려대원으로 경상남도에서 활동했다.

1944년 6월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으로 추대됐다. 같은 해 8월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제조에 적극 협력했다. 1945년 4월 일본이 '귀족원령'을 개정하여 귀족원(貴族院) 의원 7명을 조선인으로 칙선할 때 한명으로 선임되었다.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은 일본 황족·화족 의원과 천황이 직접 선임하는 칙선 및 일정액 이상 국세납부자로 구성되었다. 조선인 출신 귀족원 의원은 1945년 4월 이전에 선임된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에 그칠 정도로 특별한 예우를 받는 존재였다. 1945년 6월 국민의용대 결성식에 참석한 뒤 7월 고문을 맡았다.

해방 후,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바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1946년부터 1953년까지 일기 형식으로 쓴 회고록 <술회>에서 "한말의 암흑시대가 일제시대 들어 현대 조선으로 개신되었고, 정치의 목표가 인생의 복리를 더하는 것에 있었고, 관공리의 업무도 위민정치를 집행하는 것 외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일정시대에 조선인의 고혈을 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의 연혁을 모르고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편견"이라고 강변하며 친일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959년 4월 23일 사망했다.

## 김관현 金寬鉉 | 다카야마[金光副臣], 1876~1948, 서울

중추원 참의 / 도지사 / 동민회 평의원

1876년 3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러일전쟁 중군 당시 다카야마[高山光之助]란 일본 이름을 사용했다.

1895년 5월 일본 도쿄의 게이오[慶應]의숙에 입학해 1897년 3월 졸업했다. 1897년 8월부터 1898년 10월까지 도쿄의 세이조[成城] 학교에서 수학했다. 1898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899년 11월 제11기로 졸업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도쿄 제1사단 예하 보병 제3연대 견습사관으로 6개월간 근무한 뒤, 1900년 6월 일본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1900년 말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인 조택현(趙宅顯)·장호익(張浩翼) 등과 함께 "무관으로서 노국파(露國派) 정부를 전복하고 망신잡배(妄臣雜輩)를 일소하여 참된 한국의 독립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혁명일심회(革命一心會)'를 조직하고 혁명혈약서(革命血約書)를 작성했다.

혁명혈약서의 내용은 "대황제 폐하를 폐위할 것, 황태자 전하를 폐위할 것, 의친왕으로 황제의 자리를 대신할 것, 국사범(國事犯)으로 정부를 조직할 것, 만약 이 일을 누설할 경우에는 서로의 죽음도 불사할 것" 등이었다. 이 서약서를 작성한 후 1901년 3월에 귀국하여 대한제국 친위보병 제3연대에서 복무했다.

혁명일심회는 1902년 유길준의 쿠데타 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쿠데타 음모 사건 관련자 15명 중 아홉 명은 체포되어 참형을 선고받았고, 김관현은 1902년 6월 일본으로 망명했다. 망명 중이던 1904년 6월 일본 육군의 한국어 통역으로 임명되어 제8사단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같은 해 10월 보병 제17연대에 배속되어 러일전쟁에 종군했다.

이때 본연의 임무인 한국어 통역뿐 아니라 명령 전달, 탄약 운반, 적정 감시는 물론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가 1905년 3월 만주 봉천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이후 이러한 훈공을 인정받아 1908년 2월 일본 정부가 주는 하사금 1,000엔을 받았다.

1905년 8월 대한제국 육군유년학교 학도대에 배속되었으며, 10월 육군 보병 부위(副尉), 12월 내부 참서관(주임관 4등), 1906년 7월 내부 회계국장(주임관 2등)과 육군 보병 정위(正尉)에 차례로 임명되었다. 1906년 11월 내부 회계국장으로 재임하던 중 일본 특사로 파견된 이지용(李址鎔)을 수행했으며, 이 공로로 1906년 12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4등 욱일장(旭日章)을 받았다.

1907년 6월 중추원 부찬의(주임관 2등)에 임명되었다가 한 달 뒤인 7월에 해임되었다. 같은 해 9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육군 정위에서 해임되었다. 1908년 1월 경기관찰도 남양군수에 임명되었다가 1909년 3월 경기관찰도 수원군수로 전임되었다. 수원군수로

재직할 때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장을 겸임했다.

합병 후, 조선총독부 군수(고등관 7등)에 임명되어 1910년 10월부터 1917년 9월까지 경기도 수원군수로 재임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수원군수 재임 당시, 1914년부터 1917년 9월까지 경기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지냈으며,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0년 12월 종7위에 서위된 후 1912년 9월 정7위, 1916년 3월 6위에 차례로 승서(陞叙)되었다. 1912년 6월 고등관 6등, 1915년 12월 고등관 5등에 차례로 서임되었다. 1917년 9월 함경북도 참여관(고등관 3등)에 임명되었다. 1917년 11월 종5위로 승서되었다.

1918년 9월 전라남도 참여관을 거쳐 1921년 2월 충청남도지사에 임명되었다. 1920년 7월 훈3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으며, 10월 사이토[齋藤實]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 "훈3등 서보장을 받고 감격"했다고 썼다.

1921년 3월 정5위, 1924년 6월 종4위로 승서하고, 1923년 3월 고등관 1등에 서임되었다. 충청남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1924년 4월 충청남도 보통학교장 회의에서 "조선 교육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한뜻으로 반도문화(半島文化)의 향상과 발달을 촉진하고 민중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라는 훈시를 했다.

1924년 5월 31일부터 4일간 장헌식(張憲植)·이완용(李完用)·송병준(宋秉駿)·민상호(閔商鎬)·조희문(趙義聞) 등과 함께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裕仁]의 성혼향연(成婚饗宴)에 참석했다. 같은 해 10월 함경남도지사에 임명되었고, 1926년 8월에 사직했다. 1926년 9월 특지(特旨)로 정4위로 승서되었다.

함경남도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국책기구의 임원을 맡거나 친일단체에서 활동했다. 1926년 7월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935년 7월에 해산할 때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임하며 감사를 맡았다.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는 일제가 추진한 산미증식계획의 중심 사업인 토지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회사다.

1926년 11월부터 1933년까지 동민회(同民會) 평의원을 맡았다. 동민회는 1924년 4월 조선인의 반일적 성향 강화 등에 대항하기 위해 내선융화를 내걸고 결성된 대표적 내선융화단체다. 1928년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1935년 10월 시정25주년 기념표창을 받았다.

1935년 11월에 발행된 <조선공로자명감>은 김관현을 "(관료를 역임하는 동안) 조선 각 지방의 자치 지도, 산업 개발, 민복(民福)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다. …… 향상 대국(大局)을 달관하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공영(融和共榮)에 진력한 바가 두터워, 그의 공과 노고는 다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의 덕망은 조선 전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934년 4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칙임관 대우 참의(연 수당 1,800원)에 처음으로 임명된 이후 1937년 4월, 1940년 4월, 1943년 4월 등 세 차례 연임했다. 군용기(軍用機) 100대 헌납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에서 1936년 11월 회장을 지냈다.

같은 달 경성 부민관에서 최린 등 29인과 함께 "대동아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일본 천황 폐하를 위해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즉 조선 청년들에게도 징병제를 실시해 달라"는 '조선인징병제요망운동발기인회'를 개최했다.

1937년 9월 중추원 북지위문단(北支慰問團)의 일원으로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을 위문했다. 위문단은 텐진신사[天津神社]에 참배하여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는 한편 일본군 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 내의 황군에 대한 후방지원[총후(銃後)] 활동을 다짐했다. 귀국한 뒤 <매일신보> 1937년 9월 22일자에 보고문 '북지의 황군을 위문하고'를 발표했다. 1939년 4월 대동일진회가 개최한 이용구(李容九)·송병준 추도회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1941년 6월부터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을 역임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후신으로서 일제의 침략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1940년 10월 조선 민중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른바 총후활동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조선의 전 단체와 개인을 구성원으로 지역·직장별로 각 단체들을 통합 개편해 만든 최대의 전시통제 기구였다. 1941년 9월 "전쟁에 대한 임진태세를 확립하여 보국하자"는 뜻으로 조직되어 일본의 황민화 정책에 앞장선 조선임전보국단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3일 미군정청이 발표한 '이동사령(移動辭令) 제29호'에 따라 같은 날짜로 중추원 참의에서 파면되었다. 1948년 12월 24일 사망했다.